

# 배우자 때리고 가뒤통도 구속 1% 미만

### 5년간 광주·전남 가정폭력 하루평균 37건 범죄 재발 우려되는 가정 1,114가구 달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1만 5,000여명에 이르지만, 구속된 사례는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광주·전남경찰청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정폭력 신고된 건수는 6만8,334건(광주 3만3,331건·전남 3만5,00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7건이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만4,579명이었고, 지역별로 광주는 5,541명, 전남은 9,038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람은 총 137명(광주 46명·전남 91명)으로, 구속률은 0.9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식의 가해자의 말을 믿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공권력이 제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가정폭력이 더 심각해질 위험이 큰 상황이다.

계다가 광주·전남에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이 1,114가구(광주 443가구·전남 701가구)에 달해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중 A등급(위험) 가정이 533가구, B등급(우려) 가정이 611가구로 파악됐다. A등급은 ▲3년간 입건 3회 이상 ▲3

년간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처분·보호명령 결정으로 선정된다.

가정폭력으로 3년간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이면 가정폭력 우려 등급인 B등급으로 지정된다.

가정폭력 범죄 유형이 5개에서 8개로 세분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폭행·존속협박 가해자가 7,458명으로 가정폭력 유형 중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폭력행위(2,486명), 재물손괴(1,071명), 협박

·존속협박(453명), 강간·강제추행(77명) 등이 뒤따랐다.

이은주 의원은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경찰 또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폭력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와 함께 가정폭력위험가정과 우려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상습범에 대해서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복구민의 날 기념 퍼포먼스

27일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 '2021 복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문인 복구청장, 표범식 북구의회 의장, 주민 등이 환경과 성장이 조화되는 상생 스마트 그린도시 복구가 적힌 타월을 펼쳐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 초당대 총장 연봉 3억4천만원 '전국 최고'

### 호남대 2억4천만원... 전문대도 1억3천만~1억8천만원

초당대학교 총장 보수(연봉)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학년도 광주·전남지역 4년제 사립대학 총장 보수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당대 총장은 3억4,600만원으로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중 가장 많았다.

호남대 총장 2억4,000만원, 남부대 총

장 2억100만원 등 2억원을 상회했다. 초선대 총장은 1억9,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동신대 총장 1억6,600만원, 광신대 총장 1억700만원, 목포 가톨릭대 총장 7,900만원, 광주 가톨릭대 총장 4,000만원 등이었다.

광주·전남 사립전문대 총장 연봉은 기독교간대 총장이 1억8,600만원으로 광주·전남 사립전문대 총장 중 가장 많았다.

광주 보건대 총장 1억7,100만원, 정암

대 총장 1억6,000만원, 조선이공대 총장 1억5,100만원, 서영대 총장 1억4,200만원, 동강대 총장 1억3,500만원 등이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 사립전문대 총장 연봉이 1억3,000만~1억8,000만원에 달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학교법인 이사장 연봉은 호남대 이사장이 1억9,200만원으로 광주·전남 학교법인 이사장 중 가장 많았다. 초당대 이사장은 1억5,000만원이었다. 반면 초선대 이사장은 3,600만원에 불과했다. 사립대 법인 이사장의 경우는 관

련법에 따라 법인 정관에서 정한 상근 임원이거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 살림은 어려워지는데 일부 대학 경영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 긍정적으로 보아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사학이 부담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은 기자

## '조선대 교재' 몽골 국정교과서 채택

### 간호학 전공 총 6권

조선대학교가 개발한 간호학 교재가 몽골 대학 간호학 국정교과서로 채택됐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단이 몽골 사립대학인 몽골민족대학교 협조를 받아 개발한 간호학 교재 6권이 몽골 대학 국정교과서로 확정됐다.

국정교과서로 채택된 교재는 ▲기본간호학1 ▲기본간호학2 ▲간호윤리 ▲간호학개론 ▲비판적사고와 간호과정 ▲암환자의 간호 등이다.

애초 지난해 기본간호학 실습지침서 등 총 9권이 국정교과서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권으로 최

종 결정됐다.

이와 관련, 조선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단은 최근 몽골민족대학교에서 간호학 국정교과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고 몽골 보건부 장관 상을 받았다.

조선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단은 호남지역 대학 최초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016년부터 몽골민족대학교와 교류해 간호학과 교육역량 강화와 지역 말기 암 환자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과서는 양 대학의 학술교류, 국내 간호학과 교수와 몽골 현지 집필진의 원고 집필과 번역 및 감수를 통해 개발됐다. /이나라 기자

## "수사기밀 누설 경찰 철저한 수사를"

### 학동참사 대책위 '수사팀 전면 개편' 촉구

광주 학동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최근 수사기밀 누설과 알선 수배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구속된 경찰관이 학동참사의 수사팀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그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학동참사의 진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가 이전 재개발 사업의 수사를 담당했을 당시 불법 혐의가 있는 재개발 사업 비리 혐의자들을 풀어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들이 학동 참사 재개발 사업에 그대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8년 학동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그때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학동 참사의 몸통 중 하나로 평가받는 현 재개발조합장의 불법 선거 의혹을 덮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사가 위선의 목인하에 수사팀장을 감싸기 위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장 등의 연루 정황을 덮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며 "광주경찰청은 수사팀장이 일부러 수사를 덮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하고, 이번 사건의 몸통 격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장의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 수사팀이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경찰청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빈 기자

## '층간소음' 불만 흉기 난동...40대 부부 참변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3분께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위층에는 60대 부부와 40대 딸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딸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부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17일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 기관에 1차례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40평(전용) <b>2억 5천</b>(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b>4억 5천</b>(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b>9억</b> 매가 <b>7억</b> (용 4억) 월수익 280만 (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b>010-6670-9800</b></p>	<p><b>투자확신/강력추천!</b></p> <p>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p> <p><b>총 1760평</b>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b>010-6670-9800</b></p>	<p>◆ <b>월수익 750만</b></p> <p>◆ <b>연수익 9천만</b></p> <p>◆ <b>매매 13억</b> (용6억 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격정 없음. 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리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p> <p><b>010-6670-9800</b></p>	<p><b>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b></p> <p>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p> <p>•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gt;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gt;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gt; 최저가 6억6천 (9/28) 서구 동천동(아파트) ▶ 감정가 5억1천 -&gt; 최저가 3억5천 (10/6) 서구 농성동(근린주택) ▶ 감정가 8억1천 -&gt; 최저가 4억5천 (10/20) 동구 계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 -&gt; 최저가 4억2천 (10/20)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1억2천 -&gt; 최저가 8천9백 (10/29)</p> <p>전남 화순군 백이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gt;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gt;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정) ▶ 감정가 68억 -&gt;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2억7천 -&gt; 최저가 7천 (10/12) 곡성군 곡성읍(숙박시설) ▶ 감정가 1억 -&gt; 최저가 7천4백 (10/27)</p> <p>시외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gt; 최저가 2억 2천 (9/27) 인천 부평구 (근린시설) ▶ 감정가 38억 9천 -&gt; 최저가 19억 (10/19)</p> <p><b>062-382-5500</b></p>